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1등만 했대요= '상계동 아이들의 작가 노경실의 첫 번째 그림책, 아들이 뭐든지 1등만 했대요'는 아빠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아빠의 어린 시절을 찾는다. 그림과 사진, 일러스트 등을 활용해 아빠의 과거부분을 표현했다.

▲이두호의 가라사대=만화가 이두호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 등 역사 속 거인들에 대한 21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각 작품마다 유화, 파스텔 등 어울리는 컬러 기법을 이용해 만화를 그렸다.

▲노란 기사의 비밀=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주인공 파울리네의 시점에서 약 2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일기형식으로 담았다.

▲할까 말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다 쉽게 풀어낸 그림책. 어린이들이 수학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노란 기사=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주인공 파울리네의 시점에서 약 2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일기형식으로 담았다.

▲노란 기사=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주인공 파울리네의 시점에서 약 2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일기형식으로 담았다.

▲노란 기사=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주인공 파울리네의 시점에서 약 2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일기형식으로 담았다.

▲노란 기사=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주인공 파울리네의 시점에서 약 2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을 일기형식으로 담았다.

인생을 관통하는 사소하지만 놀라운 진실

로즈버드 피에르 아슬린 지음

한때 미국 거대신문의 발행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고독에 빠진 한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임종의 순간에 그는 인은 눈 내리는 풍경이 담겨있는 수정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린다. "로즈버드... 로즈버드... 로즈버드..."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사소하지만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간의 편견과 인식을 배반하는 사소한 것, 그것이 바로 로즈버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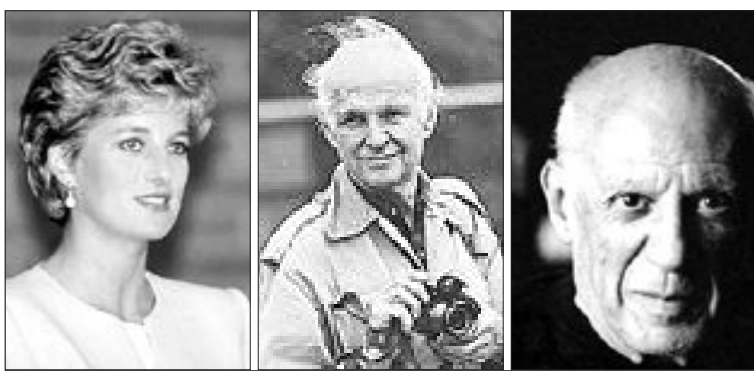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영국의 다이애나비, 프랑스 사진작가 브레송, 화가 피카소.



발견해 본다.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찰나의 순간' 포착에 전착했던 그는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자신의 접시식 의자를 펴고 앉았으며 조용히 몇 시간이고 그 의자에 앉아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다.

시대와 불화 겪는 舞姬 최승희의 삶

나는 춤이다 김선우 지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 무희(舞姬)였던 최승희가 소설 속 주인공으로 살아 돌아왔다. '내 허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의 시인 김선우가 최승희를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소설 '나는 춤이다'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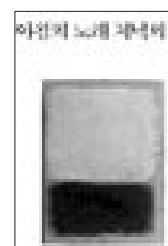


한 영화제작사로부터 최승희와 관련한 시나리오 집필을 의뢰받은 저자는 각종 자료를 섭렵하고 평양과 일본으로 취재를 다녀오면서 점점 최승희라는 인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항지우씨 등 동료 시인들의 작품 감상

아침의 노래... 나희덕 엮음

김수영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동료 시인들의 작품을 묶어 '아침의 노래 저녁의 시'를 펴냈다.



나 시인은 지난 2004년부터 한 일간지에 연재한 '시가 있는 아침'의 수록작 등 모두 80여편의 시를 골라 짙짙한 자신의 감상을 함께 적었다.

대인동심일부동산
(☎)223-1140, 210 111-882-2532
(광주동심 신분영, 대인동 신분영, 대인동 신분영)

일가공인중개사
(☎)234-8216 111-609-0836
(광주주유국부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383-5221 111-609-5221
(구상무대 경문)

현대공인중개사
(☎)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공료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선별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062)973-9174, 016-757-8800

한일지도판매(주)
(☎)9529-1408 010-2466-1408 (전)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자선동 373-8 법원정문앞)